

한복 전시를 위한 마네킹에 관한 연구

김 여 경 · 김 정 민 ·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Mannequins for the Display of Hanbok

Yeo Kyung Kim · Jeong Min Kim · Na Young Hong⁺

Instruct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투고일: 2013. 5. 15, 심사(수정)일: 2013. 7. 23, 게재확정일: 2013. 8. 1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use of mannequins that are designed to display *Hanbok* and put forwar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carry out the study, an analysis on the mannequins that are currently in the market was conducted along with a survey with professionals who are in charge of the displa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hat it has gathered the opinions of professionals who are currently participating in the displays of *Hanbok* to lay the foundation for improvements. As *Hanbok* is a flat-pattern costume unlike the Western ones, the most prominent way to display is to lay them on the floor or hang them on the wall. Nevertheless, the mannequin displays are needed to show the beauty of *Hanbok* as the silhouette can only be completed when it is put on a body. A new type of mannequins that can portray the distinctive features of Korean beauty more effectively need to be developed. Although the museum and enterprise slightly differ in their preferences and requirements for the mannequins, both agree on the following criteria; the shape should be adjusted: the protruding breasts of the mannequin are not suitable for *Hanbok*, the body should be disassembled: all parts of the body should be separable and it should be flexible at the joints so that it can produce various poses, the face should represent the "koreaness" and the material should be soft. Based on these findings, we put forth the suggestion that a more suitable mannequin should be developed to portray the beauty of *Hanbok*.

Key words: display(디스플레이), Korean costume(한복), mannequin(마네킹),
visual merchandising(비주얼 머천다이징)

I. 서론

최근 한류 열풍으로 역사적 배경의 드라마나 영화 등 우리 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보는 한복'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이나 한복업체에서도 한복 관련 전시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한복뿐 아니라 패션 산업에서도 의복과 관련된 박물관 기획 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의복 전시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

이처럼 한복 전시에 대한 대중적 요구와 필요성은 증대된 반면, 한복의 다양한 면모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전시 도구는 상당히 빈약한 상황이다. 적절한 전시 도구의 선택으로 전시물의 특성과 착장법, 계절감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전시 도구는 전시 의도를 전달하는 중요 수단이며, 한복 전시에서도 적합한 전시 도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복 전시와 관련하여 전시 대상이나 방법²⁾, 전시 환경³⁾, 전시물 관리⁴⁾, 전시 해석⁵⁾ 등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전시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또 선행연구에서는 박물관의 전시 환경으로 진열장과 전시온도, 조명, 보조 패널 등을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나⁶⁾, 마네킹은 주요 도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복 전시도 의복 전시인 만큼 인체와 유사한 마네킹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한복은 서양복과 다른 특징이 있으며, 전시 환경 또한 현대패션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복 전시의 효과적인 연출에 적합한 마네킹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한복 전시를 위한 마네킹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조사와 면접 조사를 바탕으로 마네킹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먼저 마네킹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시장조사를 하였고, 시판 마네킹을 한복 전시에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한복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및 박물관 실무자를 면담하였다. 대학 졸업 작품전이나 개인전 등에서도 한복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중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박물관과 한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복 전시의 현황과 시판 마네킹에 대한 개선점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직접 면담을 통한 자료는 다소 주관적인 정보라는 한계가 있으나⁷⁾ 실무진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한복용 마네킹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점을 제안하기에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판단된다. 단지 접촉 가능한 면담 대상자의 선정에 제한이 있었으며 전시 상황과 예산, 규모, 개인적인 선호 등에 따라 응답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시장조사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근이 용이한 마네킹 판매업체의 웹사이트 10곳⁸⁾을 선정하여 실시하였고, 시판 중인 마네킹의 규격, 형태, 재질과 색상을 분석하였다. 면담조사는 복식 관련 기획전 또는 상설전을 실시한 박물관 7곳, 문화재단 1곳, 그리고 서울시내 주요 한복업체 6곳을 방문하여 일대일로 실시하였다.⁹⁾ 객관적 자료 수집을 위하여 면담 시 전문 연구자 2인이 동행 면접하였으며, 이후 녹취 자료를 분석하였다. 시장조사와 면담조사의 기간은 2013년 1월 3일부터 2013년 5월 3일까지이다.

II. 한복 전시의 특징과 현황

1. 전시 대상물에 따른 특징

한복은 의복 구성적인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구성된 서양복과 달리 평면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한복은 완전히 펼쳐져 평면적으로 제시되었을 때 전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물의 무늬나 색, 봉제방법 등 구체적인 관찰이 가능하다. 한편, 입체적인 인체 위에 착장되었을 때 비로소 조형성이 완성된다. 따라서 한복 전시에서 한복의 구성적 특징이나 무늬, 봉제기법 등을 보여줄 것인지, 착장 형식을 보여줄 것인지는 전시 의도에 의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전시 방법과 사용되는 도구가 달라질 수 있다.

또 한복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는 실크 사직물¹⁰⁾로 다른 직물에 비하여 비교적 섬세한 관리가 요구된다.

박물관 전시는 업체에 비해 전시대상물에 대한 보존에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직물을 전시할 때 평평하게 하며 마찰, 굽힘, 압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¹¹⁾는 전시 지침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전시 추세는 관람객과의 소통이나 스토리텔링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복의 소재나 색채를 보존하면서도 한복을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적절한 전시 도구가 요구된다.

2. 전시 주체에 따른 특징

현재 한복을 전시하는 주체는 크게 박물관과 한복업체로 나뉜다. 박물관과 업체의 전시는 그 목적과 대상 등이 달라서 마네킹을 사용하는 목적이나 요구사항에서 차이를 보인다. 박물관과 업체를 구분하여 한복 전시의 목적과 대상, 전시 기간 등을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박물관과 한복업체는 전시의 목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박물관에서는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복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박물관은 유물을 수집하고 보관, 연구,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최근에는 박물관의 강좌, 심포지엄, 출판물을 통한 교육적 효과와 문화적 소통의 기능이 대두되고 있다.¹²⁾ 박물관 복식 전시의 소통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시 도구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일본의 교토의상연구소(KCI)에서는 역사의상 전시에 맞는 시대별 마네킹을 개발하였다. 이후 다양하게 개발된 KCI 마네킹은 전 세계 박물관에서 사용되고 있다.¹³⁾ 한복 마네킹 역시 한복의 시대별 유행을 반영하여 한복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

록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복 업체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해 한복을 전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매장 내 전시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마네킹을 사용한 한복 전시에 관해서는 업체의 영업 전략이나 컨셉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한복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데 마네킹 사용이 도움 된다고 보는 반면, 한복은 맞춤 제작하기 때문에 고객마다 요구가 달라 마네킹을 통해 구체적인 상품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부 전시장에서 한복을 전시할 때에는 마네킹을 활용하며, 마네킹 착장이 한복의 대중적인 이해를 높이고 브랜드 홍보에 용이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어 대중적으로 한복을 알리기 위한 적절한 한복 마네킹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복식 전문 박물관에서는 상설전과 기획전(특별전)을 합하여 1년에 1~2회 정도 복식 전시를 진행 중이다. 복식 전문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복식 유물을 다량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은 1~2년에 한 번씩 복식을 주제로 한 전시를 진행하며, 여타의 전시에도 부수적으로 복식이 몇 점씩 전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박물관의 한복 전시는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전시 준비 기간은 기획전시의 경우, 약 3개월~1년 이상이지만 대체로 6개월 내외로 짧고, 전시 기획의 기간이나 예산 등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전시 의도에 맞는 전시 도구를 갖추기 어려우며, 기존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시 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한복업체의 매장 내 전시는 상황에 따라 큰 차이

<표 1> 박물관과 한복업체 내 한복 전시 비교

	박물관	한복업체
전시 목적	유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람객의 유물에 대한 이해 도모	브랜드와 매장의 이미지를 높이고 제품 판매에 기여
전시 대상	출토품, 전세품, 재현품	판매 상품, 이미지용 소품
전시 기간	기획전시(2~3개월), 상설전시(상설)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업체마다 상이
담당 인력	해당 전시 기획자 한복 전시 전문 인력은 극소수	디자이너, 매장 담당자 등 전문 인력 거의 없음

를 보이는데 대체로 계절에 1~2회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VM(Visual Merchandising)에 있어 꽃이나 기타 소품을 활용하여 계절감을 표현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한복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거나 구매의욕을 시각적으로 자극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복업체에서는 전문 인력 없이 디자이너 또는 매장관리 직원에 의해 전시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즉 브랜드 기획에 따르기보다는 디자이너의 직관으로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패션브랜드에서 VM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¹⁴⁾과 큰 차이가 있다.

3. 한복 전시 도구의 종류와 특징

현대패션에서는 VM을 위해 다양한 형태 및 재질의 도구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신체 각 부분을 모두 가진 형태로 인체와 거의 유사한 슈퍼 리얼 마네킹

(super real mannequin), 형태는 인체와 비슷하나 피부와 머리모양을 다양하게 표현한 리얼 마네킹, 프로포션이 과장되어 있고 얼굴, 손, 발 등의 세부적인 묘사를 생략한 추상 마네킹 등을 사용하고 있다.¹⁵⁾ 또 얼굴과 팔다리를 제외한 토르소 마네킹과 나무패널이나 두꺼운 종이보드를 인체의 실제 비율과 실루엣대로 잘라 만든 실루엣 마네킹, 플라스틱에 공기를 주입한 튜브형 바디, 스탠드형 옷걸이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¹⁶⁾

한편 한복 전시에는 전신 또는 토르소 마네킹, 빗면대(경사대), T자대, 일자(一字)형 봉, 평면대(좌대) 등이 사용된다. 이 외에 문틀, 목가구, 다듬잇돌 등의 전통가구나 소품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한복 전시에 사용되는 도구는 현대패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VM 도구에 비해 다소 제한적이므로 다양한 전시 도구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복 전시 도구 중에서 전체 착장을 제시할 때 사



〈그림 1〉 마네킹
국립민속박물관 이리자 한복 기증 특별전
- 전시: 기획×디자인, p. 294



〈그림 2〉 빗면대
국립민속박물관 변수묘 출토복식 전시
- <http://www.nfm.go.kr/Display>



〈그림 3〉 일자형 봉
국립민속박물관 이리자 한복 기증 특별전
- 전시: 기획×디자인, p. 116



〈그림 4〉 횃대
- 직접 촬영, 2013. 4. 1

용되는 것은 마네킹이다. 마네킹을 이용한 연출은 한복에 대한 공감대를 관람객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며, <그림 1>¹⁷⁾과 같이 여러 자세를 취하여 보다 다양하게 연출되기도 한다. 특히 출토품이거나 훼손의 우려가 큰 전시물인 경우는 <그림 2>¹⁸⁾처럼 빗면대(경사대)에 주로 전시된다. 또 T자대와 <그림 3>¹⁹⁾의 일자형 봉은 한복의 구체적 형태와 구성을 보여주는 데에 효과적이며, 전시장의 분위기 연출을 위해 봉의 소재로 아크릴, 대나무, 도자기 등의 다양한 재질을 사용하기도 한다. 업체에서는 <그림 4>에서 보듯이 나무로 만든 햇대에 한복과 자연물 등을 함께 연출하기도 한다.

관모나 장신구는 좌대 등을 사용하여 눈높이에 맞는 진열장 전시방법을 많이 취한다.²⁰⁾ 이는 장신구의 착장 상태를 연출하기에는 도구에 한계가 있으며, 유물의 크기가 작아 구체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에 전시의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Ⅲ. 한복 전시를 위한 마네킹의 현황 분석

1. 마네킹의 종류

현재 한복 전시에는 전신 마네킹과 토르소 마네킹이 사용된다. 한복 전시에 사용되는 전신 마네킹은 대부분 머리와 몸통, 팔과 손, 다리와 발이 있으며 머리카락까지 있는 형태이나, 머리가 없는 형태도 있다. 신체 부위별로 상반신 마네킹과 하반신 마네킹이 있으며, 토르소 마네킹은 머리, 팔, 무릎 아래 부분이 없는 몸통만 있는 형태로 비교적 간소하게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성별에 따라 남자와 여자 마네킹이 있으며 아동 마네킹도 있다.

2. 마네킹의 규격

박물관과 한복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판 마네킹의 규격을 알아보기 위해 마네킹 정보가 제시된 웹사이트 10곳의 마네킹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번 연구는 시판 마네킹이 전반적으로 한복 전시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별, 타

겟 연령별 마네킹 규격의 상세한 차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다. 또한, 현재 패션업체와 달리 박물관과 한복업체는 소수의 마네킹에 거의 모든 체형과 연령대의 복식을 연출하고 있다. 예산 및 보관상의 한계로 각 연령별, 체형별 마네킹을 전부 구비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는 한복이 서양복과 달리 넉넉하게 착용하는 의복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연령이나 타겟에 적합한 마네킹의 규격에 관한 연구는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네킹의 신장이 한복을 착장시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전신 마네킹과 한국인의 평균 신장을 비교하였다. 분석 대상은 웹사이트 10곳의 마네킹 중 신장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제공된 83점이다. 결과는 <표 2>에서 보듯이 남자마네킹의 키는 171~175cm가 40%, 186~190cm가 37.5%이고, 여자 마네킹은 176~180cm가 34.9%였다. 실제 한국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171.6cm, 성인 여성의 평균 키는 158.7cm²¹⁾로 시판 마네킹이 한국인보다 신장이 크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는 대체로 서구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마네킹의 신장이 큰 것이 적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복은 착장 시 치마가 바닥에 끌리도록 하는 것이 전통적인 연출방법이므로 신장이 큰 마네킹은 한복 전시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신장 조절이 가능한 마네킹이 요구된다.

마네킹의 체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인 한국인 신체 치수와 종류별 마네킹의 신체 치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복 전시에 주로 사용되는 전신 마네킹(남자 22점, 여자 17점), 한복 전용 마네킹(각 1점), 토르소 마네킹(남자 30점, 여자 65점)의 어깨너비,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평균치를 조사하였고, 마네킹 판매 업체 간에 편차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모든 종류를 구비하고 있는 업체 한 곳²²⁾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체로 남자 마네킹은 '피팅사이즈 100', 여자 마네킹은 '피팅사이즈 55'로 명시되어 있었다. 한국인의 신체 치수는 한국 기술표준원의 '성인 여성복 치수'에서 제시한 성인(만 18세에서 만 59세까지)을 기준으로 하고, 20대(19~29세), 30대(30~39세), 40대(40~49세), 50대

〈표 2〉 시판 마네킹의 신장 분포

	단위 (cm)	수량	백분율 (%)
남	170 이하	1	2.5
	171~175	16	40.0
	176~180	3	7.5
	181~185	5	12.5
	186~190	15	37.5
	합계	40	100
여	160 이하	5	11.6
	161~165	1	2.3
	166~170	9	21
	171~175	8	18.6
	176~180	15	34.9
	180 이상	5	11.6
	합계	43	100

(50~60세)로 구분하였다.

일반 전신 마네킹과 한국인의 연령대별 신체 치수²³⁾를 비교한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마네킹의 신체 사이즈는 우리나라 20대의 평균 신체 사이즈에 제일 근접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자 마네킹은 한국인 신체 치수에 비해 어깨너비는 넓지만,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다소 작게 나타났다. 여자 마네킹은 어깨너비는 넓은 반면 그 외의 치수는 현격히 작게 나타났다. 20대의 인체와 마네킹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편차가 유사하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체 치수에서는 그 편차가 줄어들고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그런데 현재 시판 마네킹이 20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한복을 착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곡선이 강조되는 인체 표현은 입체

적인 패턴으로 제작되는 서양복을 연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나 한복 착용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마네킹의 종류에 따른 규격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반 전신 마네킹, 한복 전용 마네킹, 토르소 마네킹의 규격을 비교하였다. 한복 전용 마네킹은 일반 마네킹에 비해 현격하게 가슴이 작은 것이 특징이며, 이에 비해 허리둘레는 크고, 엉덩이 둘레는 작다. 즉, 일반 마네킹에 비해 한복 전용 마네킹이 신체의 굴곡이 완만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복 전용 마네킹의 어깨너비가 일반 마네킹에 비해 넓으며, 성인 한국인의 평균 어깨 너비에 비해서도 상당히 넓은 것이 특이점이다. 토르소 마네킹은 일반 마네킹과 비교하여 엉덩이둘레가 작은 것 외에 편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높이

〈표 3〉 마네킹과 성인 한국인의 연령대별 평균 신체 치수 (단위:cm)

	측정부위	성인 연령별 평균 신체 치수				일반 전신 마네킹	한복 전용 마네킹	토르소 마네킹
		20대	30대	40대	50대			
남자	어깨너비	39.5	39.7	39.1	38.5	44.2	45.0	41.6
	가슴둘레	93.8	96.6	96.1	94.6	92.0	84.0	92.5
	허리둘레	78.7	84.7	85.6	86.3	75.0	79.5	77.7
	엉덩이둘레	93.5	94.9	93.6	92.3	93.9	89.0	91.1
여자	어깨너비	35.1	35.5	35.5	35.5	36.1	38.0	34.1
	가슴둘레	83.3	85.7	87.7	90.0	79.8	78.0	81.5
	허리둘레	70.1	74.6	77.5	83.1	60.5	70.0	63.0
	엉덩이둘레	91.6	92.8	92.9	93.8	86.7	86.0	83.1

조절이 가능하고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하다. 따라서 현재 토르소 마네킹이 한복 착장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마네킹의 형태

마네킹의 얼굴 형태를 보면 크게 <그림 5>²⁴⁾의 이목구비가 없는 형태, <그림 6>²⁵⁾의 얼굴 형태가 간략한 추상 형태, <그림 7>²⁶⁾의 이목구비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형태가 있다. 이목구비가 표현된 형태는 대부분 눈이 움푹 들어가 있고 코가 높으며 쌍꺼풀이 진하고, 속눈썹이 길게 표현되어 있어 전형적인 한국인보다는 서구인에 가깝다. 모발이나 눈썹의 색과 모양 등의 화장(化粧)은 제작 당시의 유행을 따르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이다. 한복 전용 마네킹은 한국인의 얼굴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그림 8>²⁷⁾에서 보듯이 눈이 좁고 길며 코가 낮게 묘사되어 있으며, 남자는 상투머리이고 여자는 쪽머리로 조선 후기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복 전용 마네킹은 전신 마네킹 182점 중 남녀 각각 1점씩에 불과했다.

4. 마네킹의 소재와 색상

일반적인 마네킹의 재료는 초기의 밀랍에서부터 플라스틱과 아크릴, 나무, 파이프, 금속, 패브릭 등 다양하다.²⁸⁾ 그러나 시장조사 결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시판되는 전신 마네킹의 소재는 크게 FRP와 우레탄으로 나눌 수 있다. 대다수인 FRP 마네킹은 소

재의 특성상 표면이 비교적 매끄럽다. 그러나 딱딱한 재질이므로 착장 시 전시물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유연성이 없으므로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깨나 팔, 무릎, 손가락 등의 연결부위에 구체를 넣어 사람의 관절처럼 구부릴 수 있게 만들기도 하며, 무릎이나 팔을 구부리거나 젖힌 자세, 앉은 자세 등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도 판매 중이다. 또 유성 페인트로 도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과 눈썹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이목구비나 손발가락 등을 비교적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레탄 소재의 마네킹은 몸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 전시물의 착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질의 특성상 흰색 계열이 대부분으로 구체적인 표현에 한계가 있다.

조사 대상 전신 마네킹 총 182점 중 10점만이 우레탄으로 제작된 데 반해, 토르소 마네킹은 대체로 우레탄 또는 스티로폼에 표면을 원단으로 감싼 형태이다. 따라서 핀을 꽂기 용이한데, 한복의 소재가 매끄러운 경우가 많고 인체 착장 시에 조형성이 완성되어 연출이 중요하므로 토르소 마네킹과 같이 마네킹의 몸통에 한복을 핀으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림 5>
이목구비가 없는 형태
- <http://www.kwangjenmq.co.kr>



<그림 6>
이목구비가 간략한 형태
- <http://www.kwangjenmq.co.kr>



<그림 7>
이목구비가 서구적인 형태
- <http://www.starmannequin.com>



<그림 8>
이목구비가 한국적인 형태
- <http://www.starmannequin.com>

IV. 실무자 면접을 통한 마네킹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박물관과 한복업체는 전시 의도가 상이하고 마네킹에 대한 의견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무자 면접 결과 두 분야 모두 한복 전시를 위해 마네킹을 주문 제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상당수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시판 마네킹의 규격과 형태, 소재 및 색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1. 박물관의 한복 전시용 시판 마네킹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규격 및 체형

박물관에서는 유물의 길이에 비하여 시판 마네킹의 신장이 현격하게 크기 때문에 한복 착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 대부분의 한복 전시가 진열장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관람객보다 마네킹의 눈높이가 높으면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에 A 학예연구관은 박물관의 진열장 내에 마네킹을 전시할 경우, 마네킹의 신장이 남자는 165cm 이하, 여자는 160cm 이하가 전시에 적합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한복의 하의와 달리 상의는 시대와 신분, 아이টে에 따라 크기 변화가 현격하게 나타난다. 특히 조선 후기 여자 저고리는 전시 유물의 가슴둘레가 시판 마네킹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서 박물관에서는 가슴둘레가 작게 제작된 마네킹 또는 청소년 마네킹을 사용하여 여자 한복을 전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에 따라 어깨나 가슴·허리·엉덩이둘레에 솜이나 한지 등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유물에 적합하도록 규격을 맞추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번거로운 작업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시 도구를 희망하였다.

특히 마네킹의 체형에 대해서는 가슴 형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가슴둘레도 유물에 비해 크지만, <그림 9>²⁹⁾와 같은 봉긋한 가슴의 형태 때문에 저고리의 앞섶이 벌어지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가슴을 납작하게 변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뒤로 젖혀진 체형은 한복을 착장시킬 때 저고리 앞부분이 벌어져 여며 입는 한복 맵시에 적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형태

박물관에서는 토르소 마네킹과 전신 마네킹을 전시 여건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데, 토르소 마네킹이 전신 마네킹보다 높이 조절이 용이하고 머리가 없으며, 사용이 간편하여 선호하였다. 또 면담자 전원이 전신 마네킹 몸체의 각 부분이 분리·조립되는 형태를 요구하였으며 각 관절 부위에서 구부러져 다양한 자세가 연출되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한복 착장 시 유물 보존 차원에서 유연한 자세를 원하였다. 마네킹의 구체적인 부위별 세부 형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머리

마네킹에 머리가 있는 형태가 쓰개 또는 장신구를 연출하기 용이하며, 관람자의 한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얼굴에 대해서는 사람과 흡사한 형태를 지녀야 한복 착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와 달리 이목구비가 완전하게 있는 형태는 전시물에 가야 할 시선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의복 전시의 의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마네킹의 화장(化粧)이 마네킹 제작 시기의 유행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 전시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시판 마네킹의 얼굴이 서구적이라는 것에 면담자 전원이 동의하였고, 따라서 차선택으로 이목구비가 없거나 간략한 형태의 마네킹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면담자 14명 중 12명이 한국형 얼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지만, 현재는 기술과 예산상의 문제로 이를 구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단아한 얼굴이 제시되어야 하며, 유행에는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화장과 신분 등을 다양화한 개성 있는 마네킹의 얼굴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상반신

전신 마네킹에서 머리가 탈부착 되는 경우, 목에 있는 접합선이 전시에 방해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토르소 마네킹에는 목의 끝마감을 위한 마개가 있는데, 재질이 직물인 경우도 있지만, 금속이나 나무가 대부분이다.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전시 때마다 목을 흰색 원단이나 한지로 감싸는 것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목의 두께와 길이에 대한 불편도 있었는데 목이 두꺼운 경우에는 예복 착용 시 여밈이 벌어지기도 하며, 목 길이가 짧은 경우에 조선 초·중기 남자 포의 넓은 것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각 시대의 이상적인 체형과 의복의 특성을 고려한 한복용 마네킹의 개발이 요구된다.

마네킹의 어깨는 다소 넓고 솟은 형태인데 둥근 어깨선이 한복의 맵시에 적당하여 박물관에서는 어깨에 한지를 덧대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또 경우에 따라 마네킹의 팔을 탈착하는데 팔을 끼우면 어깨가 넓어져 한복 착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팔이 경질이면 자세가 어색하여 팔을 빼는 경우도 많았다. 팔이 없을 때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형태로 소매를 고정하거나, 증성지나 스펀지 등의 충전재로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팔이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이 있거나, 쉽게 구부러지거나 원형(原形)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한 마네킹을 요구하였다.

손과 손가락은 대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가방을 함께 전시하거나 연출을 위해 치맛자락을 손가락으로 잡는 등의 다양한 자세 연출을 원하였다. 자

연스럽고 부드러운 형태를 선호하였으며 <그림 10>³⁰⁾과 같은 관절의 유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어색하다는 다소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

(3) 하반신과 지지대

마네킹의 하반신에 대해 그 치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면담자들이 응답하였으나, 남자 바지 착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자 역시 치마 아래에 속바지를 입히기 때문에 하반신의 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네킹 지지대는 바닥에 놓이는 받침대와 마네킹에 연결되는 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네킹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받침대의 재질은 주로 스테인리스 또는 나무이며, 형태는 사각형이나 원형이다. 전시기획자의 선호도나 전시장 분위기에 따라 받침대가 선택되는데 다양한 형태를 원하기도 하고, 받침대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지대의 봉은 대부분 금속 재질로 되어있는데 몸체와의 연결 부위가 연출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지대가 <그림 11>³¹⁾처럼 발바닥에 연결되어 있거나 <그림 12>³²⁾와 같이 종아리 등의 부위와 연결된 마네킹도 판매 중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신 마네킹과 같이 한쪽 발바닥에 지지대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우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버선이나 신발 연출 시 밑창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림 9> 마네킹의 가슴 부분
- <http://www.shopandmall.co.kr>



<그림 10> 관절이 있는 손가락
- <http://www.shopandmall.co.kr>



〈그림 11〉 봉이 발바닥에서 연결되는 형태

- <http://www.starmannequin.com>



〈그림 12〉 봉이 종아리에서 연결되는 형태

- <http://www.starmannequin.com>

3) 소재와 색상

마네킹의 소재는 부드럽고 잘 구부러져 연출이 용이한 연질을 면담자 전원이 선호하였다. 그러나 이를 장기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골격을 이루는 소재의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시물이 사람에게 착용된 듯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연질 마네킹도 원단으로 감싸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피부색에 대하여 대부분 흰색, 연한 베이지색 또는 한국인의 피부색에 가까운 색을 선호하였으며, 박물관에서는 대부분 전시물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무난한 색상의 마네킹을 사용하였다. 일부 의견으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변화되는 마네킹이나 빛이 나오는 마네킹 등 소재와 색상에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마네킹이 개발되기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2. 한복 업체의 한복 전시용 시판 마네킹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복 업체의 경우 현재는 면담에 응한 6곳 중 3곳만이 전시에 마네킹을 활용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업체 모두 마네킹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현재 마네킹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판마네킹의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인터뷰 할 수 있었다.

1) 규격 및 체형

한복업체에서는 마네킹의 신장이 실제 한국인에 비하여 큰 것에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A업체의 경우 패션 화보 촬영이나 패션쇼를 자주 진

행하여 패션모델 치수의 한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마네킹에 전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 업체에서는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가슴 부분이 솟아있는 마네킹의 형태는 가슴을 압박하여 입는 한복의 착장 방법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복의 여성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가슴 부분에 탄성이 있는 마네킹을 제안하였다.

2) 형태

(1) 머리

머리와 얼굴 형태에 대해서는 한복 업체마다 크게 이견이 있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목구비가 한국인과 흡사한 형태를 지닌 마네킹을 요구하는 반면, 이목구비가 완전하게 있는 형태는 지나치게 전통적인 이미지로 진부해 보이므로 다소 추상적인 형태를 선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현재 한복용 마네킹을 업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마네킹의 머리를 꼽았으며, B업체에서는 시판 중인 성인 여자 마네킹은 브랜드 이미지에 적합한 것이 없어 사용하지 않고, 아동 마네킹만 매장 전시에 활용하고 있다.

한복 전시를 위하여 마네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토탈 코디네이션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머리 모양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C업체에서는 컨셉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자체 제작한다고 하였다. 업체의 이미지에 따라 마네킹을 직접 개발하는 것은 예산 등 여

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머리 모양이나 모자 등의 가변적인 요소를 통해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업체에서는 현재 매장 내 연출을 위하여 마네킹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그림 13>과 같이 한복 인형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피부색과 이목구비가 한국인과 유사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 인형을 선호하였으며, 제작 기술면에서 한계가 있으나 이와 같이 전통미가 강조된 마네킹의 개발을 요구하였다.

(2) 상반신

한복업체에서는 시판 마네킹의 가슴 부분에 대하여 전통적인 한복의 아름다움을 해치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어깨가 다소 솟고 넓은 형태가 현대 한국인의 체형에 가까워서 오히려 현대적인 감성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업체는 생활한복 브랜드이기 때문에 인체에 밀착되도록 제품을 제작하고 있어 시판 마네킹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손과 손가락은 대부분 박물관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였으며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구조와 소재를 원하였다.

(3) 하반신과 지지대

여자 한복을 마네킹에 제시할 때에는 하반신이 치마에 가려지므로 대체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일부에서는 최근 속바지를 착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신발까지 연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양한 하반신

연출이 가능하기를 요구하였다. E업체에서 판매하는 치마의 대부분이 다리 노출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지지대를 요구하였고, 마네킹의 자체 개발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남자 한복보다 여자 한복이 주된 상품이기에 때문에 전시 사례가 많지 않으나 시판 마네킹을 사용한 남자 바지 연출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시를 기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3) 소재와 색상

한복업체에서는 경질과 연질의 전신 마네킹과 연질의 아동 마네킹을 사용하고 있다. A업체에서는 매장 내 연출에는 마네킹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외부 전시에서는 경질의 추상적인 형태인 마네킹을 사용하였고 색상은 검은색이나 흰색, 투명한 것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이는 전시 컨셉이 경질 마네킹의 추상형태와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업체에서는 투명, 흰색, 검은색 등 다양한 피부색을 사용하고 있거나 시도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에서는 혼수 한복의 주체가 젊은 신부로 옮겨가면서 과감하게 <그림 14>의 검은색 마네킹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한복 업체와 차별화되면서 색다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소비자 반응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지금까지 박물관과 한복업계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한복 전시에 사용되는 시판 마네킹이 지닌 문제점 및 제언을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그림 13> 인형
- 직접 촬영, 2013. 4. 1



<그림 14> 검은색 마네킹
- 직접 촬영, 2013. 4. 5

〈표 4〉 면접에 따른 시판 마네킹 문제점 및 제언

		박물관	한복 업계
규격 및 체형		· 유물에 맞는 치수로 조절이 필요 · 가슴 형태 수정	· 신체 치수는 적합 · 가슴 형태 수정
형태	구성	· 토르소, 전신 마네킹 사용 · 전신 분리형 요구	· 토르소, 전신 마네킹 사용 · 전신 분리형 요구
	얼굴	· 전시의 효율성을 위하여 유행에 따르지 않는 추상형 선호 · 정교한 한국인 얼굴 필요	· 새로운 이미지를 위하여 추상형 선호 · 정교한 한국인 얼굴 필요
	상반신	· 토르소의 목을 천으로 감싸는 방식 불편 · 유물보존을 위하여 착의에 용이하도록 유연한 팔 필요	· 다양한 자세 연출을 위하여 팔을 움직일 수 있으며 손가락 관절 마네킹 필요
	하반신	· 유물보존을 위하여 신발, 버선 훼손하지 않고 착용 필요	· 토르소는 남자바지 착용 시 문제
	지지대	· 전시를 위하여 도드라지지 않는 것이 중요	· 나무나 금속 등 새로운 소재와 형식 필요
소재		· 편입으로 연출이 가능한 재질 · 내구성 있는 소재로 골격을 만든 연결 마네킹이 필요 · 유물 훼손방지를 위한 기능 추구	· 연결 이외에 나무, 금속 등 다양한 소재 추구
색상		· 피부에 가까운 색, 흰색	· 다양한 색상 추구

V. 결론

한복 전시에서 마네킹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한복이 서양복과 상이한 특징을 가졌음에도 현재 현장에서는 서양복 전시용 마네킹이나 극소수의 한복용 마네킹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복 전시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미지 전달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마네킹의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판 마네킹에 관한 시장조사와 실무자 면담을 통해 한복 전시를 위한 마네킹의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복 전시용 마네킹은 다음과 같다. 마네킹의 규격에 있어서 시중 마네킹이 한국인의 평균 신장보다 크고, 신체 치수가 유물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대별 유물 치수의 데이터에 근거한 마네킹 또는 치수 조절이 가능한 마네킹의 개발이 필요하다. 체형적인 부분에서는 어깨는 살짝 수그러지고 가슴은 누른 듯한 납작한 형태가 필수적이다.

신체는 머리카락을 포함하여 머리부터 손발가락까지 모든 부분을 갖추어야 하며 각 부분은 분리, 조절

될 수 있어야 한다. 또 각 관절 부위에서 구부러져 마네킹에 한복 착장 시 전시물에 위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다양하게 자세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얼굴은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형과 이목구비의 개발이 시급하며,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형태가 요구된다. 더 나아가 각 시대에 맞는 화장과 머리모양이 필요하며 이를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지대는 현재 발에서 연결되는 형태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버선과 신발의 착장, 그리고 마네킹의 균형 유지를 위해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연결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네킹의 소재는 연질로 되어 연출은 용이하나 오랫동안 활용하기 위해 골격은 내구성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또 편이 꽃힐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흰색, 연한 베이지색 또는 한국인의 피부색에 가까운 색, 검은색 등 다양한 색상의 마네킹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색상의 교체가 용이한 마네킹이 개발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하는 한복용 마네킹이 개발되어 효과적인 한복 전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 한복 분야에서도 전시를 위하여 마네킹 외에 진열장이나 패키지, 행거 등 현대패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VM의 다양한 방법에 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박주희, 최현숙 (2012), 한국 패션 박물관 건립을 위한 패션 박물관의 기능과 현황 연구, *복식*, 62(5), p. 157.
- 2) 구지연 (2005), 전통복식유물의 전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소재 전통복식관련 박물관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지원 (2010), 한국전통장신구의 고찰을 통한 국내박물관의 전통장신구유물 전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이미식, 배순화 (1997), 직물류 유물의 전시 및 보관환경 실태조사: 대학박물관을 중심으로, *복식*, 34, pp. 109-120.
- 4) 권수현, 강순제 (2012), 유적건조물 문화재 내의 복식 전시물에 대한 연구-서울, 인천, 경기도를 중심으로, *복식*, 62(6), pp. 182-199.
- 5) 안인희, 박신의 (2010), 박물관 복식전시물 해석에 관한 연구-국립민속박물관 조선시대 사례복식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2), pp. 312-323.
- 6) 조지원, *op. cit.*, pp. 36-40.
- 7) 천혜정(2004), 연구방법으로써의 질적 인터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3), p. 114.
- 8) 광전디스플레이(www.kjdp.co.kr), 스타마네킹(www.starmannequin.com), 광전상사(www.kwangjenmq.co.kr), 샵앤몰(www.shopandmall.co.kr), 삼신마네킹(www.samsinmq.co.kr), 대동마네킹(www.ddmq.com), 새롬마네킹(www.saerommannequin.co.kr), 인씨아(www.incia.co.kr), 마임디스플레이(www.mimedisplay.com), 동경마네킹(www.tongkyung.com)
- 9) 본 연구를 위해 박물관의 전시 담당자, 문화재단의 한복 담당자, 업체의 대표 및 홍보담당자를 면담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해주신 전문가와 면담 일자는 다음과 같다.

No	소속	직위/성명	면담일자
1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정미숙	2013. 2. 1
2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박윤희	2013. 1. 23
3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 민보라	2013. 5. 3
4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최은수	2013. 1. 30
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학예연구사 이명은	2013. 2. 1
6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최지희	2013. 1. 18
7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담인복식미술관	학예연구사 광경희	2013. 1. 3
8	화동문화재단	연구원 김정아	2013. 4. 20
9	김혜순한복	대표 김혜순	2013. 4. 1
10	담연	대표 이혜순	2013. 4. 1

No	소속	직위/성명	면담일자
11	돌실나이	홍보기획실장 강은진	2013. 1. 24
12	박술녀한복	디자이너 이경선	2013. 5. 1
13	숙현한복	대표 신숙영	2013. 4. 5
14	한복 린	대표 김민정	2013. 4. 5

- 10) 이은진 외 (2006), 전통직물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한복소재 개발, *한복문화*, 9(3), p. 45.
- 11) 이미식, 배순화, *op. cit.*, pp. 109-110.
- 12) 박주희, 최현숙, *op. cit.*, pp. 159-160.
- 13) *Ibid.*, p. 165.
- 14) 최형민, 김혜경, 이경미 (2000), 국내 패션업체의 디스플레이 실무에 관한 조사, *복식*, 50(6), p. 180.
- 15) 박옥련 외 (2002), *패션디스플레이*, 서울: 교학연구사, pp. 42-45.
- 16) 이미현, 이소은 (2011), *비주얼 머천다이징과 디스플레이*, 서울: 파워북, pp. 84-86.
- 17) 국립민속박물관 (2010), *전시: 기획×디자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p. 294.
- 18) 국립민속박물관, 자료 검색일 2013. 5. 2, http://www.nfm.go.kr/Display/preSta_view.nfm?seq=1&nowPage=1&searchColumn=&searchWord=.
- 19) 국립민속박물관 (2010), *op. cit.*, p. 116.
- 20) 조지원, *op. cit.*, p. 45.
- 21) 자료 검색일 2013. 4. 6,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DB인 사이즈코리아의 전신측정 데이터검색을 이용하였고, 가장 최신 치수자료인 2010년 6차를 기준으로 하였다. <http://sizekorea.kats.go.kr>
- 22) 스타마네킹, <http://www.starmannequin.com>
- 23) 자료검색일 2013. 4. 6, <http://sizekorea.kats.go.kr>
- 24) 자료검색일 2013. 4. 10, <http://www.kwangjenmq.co.kr>
- 25) 자료검색일 2013. 4. 10, <http://www.starmannequin.com/shop/shopdetail.html?branduid=451903&xcode=003&mcode=001&scode=001&type=X&search=&sort=order>
- 26) 자료검색일 2013. 4. 10, <http://www.starmannequin.com>
- 27) 자료검색일 2013. 4. 10, <http://www.starmannequin.com/shop/shopdetail.html?branduid=156245&xcode=003&mcode=002&scode=001&type=X&search=&sort=order>, <http://www.starmannequin.com/shop/shopdetail.html?branduid=155939&xcode=003&mcode=001&scode=001&type=X&search=&sort=order>
- 28) 박옥련 외, *op. cit.*, pp. 42-45.
- 29) 자료검색일 2013. 4. 20, <http://www.shopandmall.co.kr/shop/shopdetail.html?branduid=9751&xcode=001&mcode=001&scode=001&type=X&search=&sort=order>
- 30) 자료검색일 2013. 4. 20, <http://www.shopandmall.co.kr/shop/shopdetail.html?branduid=397491&search=%BC%D5&sort=>
- 31) 자료검색일 2013. 4. 22, <http://www.starmannequin.com/shop/shopdetail.html?branduid=1164&xcode=003>

&mcode=001&scode=008&type=X&search=&sort
=order

- 32) 자료검색일 2013. 4. 22. <http://www.starmannequin.com/shop/shopdetail.html?branduid=469896&xcode=003&mcode=001&scode=001&type=X&search=&sort=order>